

소원과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삶에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에너지를 주고, 살 맛을 나게 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 1. 믿음의 성장을 향한 소망(12~13절)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 받은 자를 통해 주시는 첫번째 소원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며,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 단순히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자라간다고 설명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성장의 길입니다.

-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은 자라갑니다.

### 2.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망(14~15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흠 없는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라고 알려줍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며, 어두운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로서 교회가 빛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 3. 그리스도의 날을 향한 소망(16~18절)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이 가진 소망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 자신이 자랑할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19~20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여 세운 영혼들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 자신은 전제로 드러져도 기쁘고,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자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암송

### 이번 주 외울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 통독

### 이번 주 성경 통독

2/8(월)	2/9(화)	2/10(수)	2/11(목)	2/12(금)	2/13(토)	2/14(주일)
출 13-15장	출 16-18장	출 19-21장	출 22-25장	출 26-28장	출 29-32장	출 33-35장

## QT

### 이번 주 QT 말씀

2/8(월)	2/9(화)	2/10(수)	2/11(목)	2/12(금)	2/13(토)	2/14(주일)
마 11:20-30	마 12:1-21	마 12:22-37	마 12:38-50	마 13:1-17	마 13:18-30	마 13:31-43

## 나눔

###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설교를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2. 내가 가진 소원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3. 자신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소원,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소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